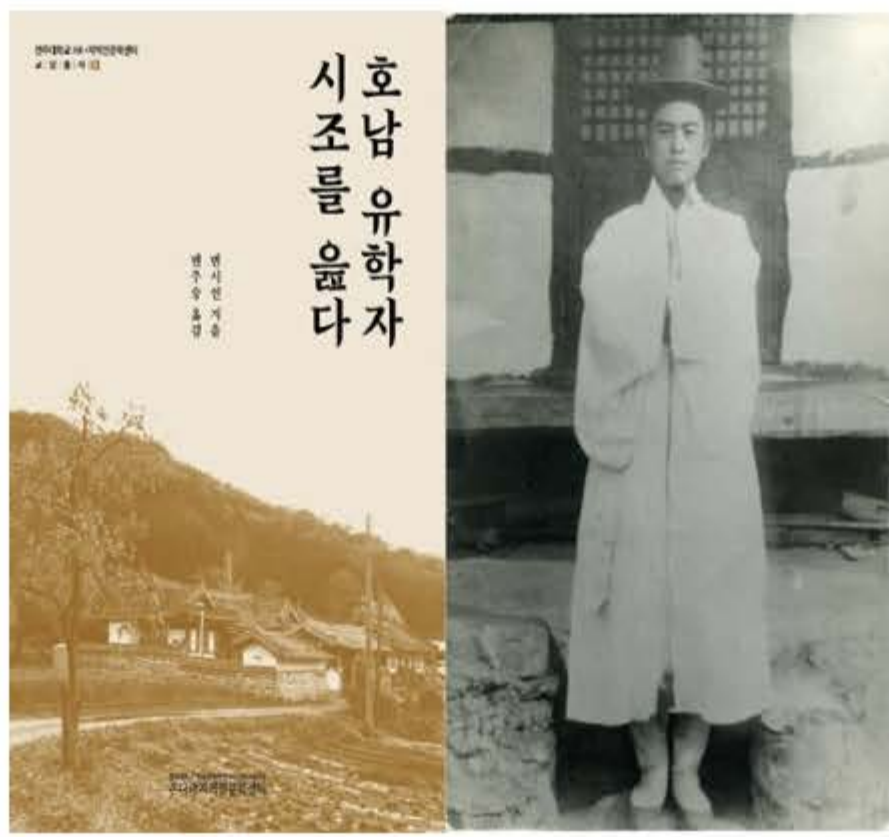


HOME > 대학뉴스 > 대학일반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교양총서 제8권 발간

온종림 기자 | jrohn@naver.com | 기사승인 : 2025-06-04 14:15:16



교양총서 제8권 '호남 유학자, 시조를 읊다'.

[대학저널 온종림 기자]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가 교양총서 제8권 '호남 유학자, 시조를 읊다'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교양총서는, 한국고문연구회장을 지낸 산암(汕巖) 변시연(邊時淵, 1922~2006)이 지은 99수의 시조(詩調) 작품을 풀이하고, 저자의 친필 원고를 수록하였다. 이 시조는 단순한 문학적 표현을 넘어 지역의 명소와 인물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고, 지역의 설화를 문학적으로 재구성하는 등 장성 지역을 대표하는 기록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저자인 변시연의 본관은 황주(黃州), 자는 경중(敬中), 호는 산암(汕巖)이다. 17세 때 충북 보은 관선재(觀善齋)로 가서 퇴계의 학맥을 이은 겸산(兼山) 홍치유(洪致裕)에게 수학하였고, 석농(石農) 오진영(吳震泳)에게 제자의 예를 올렸다. 변시연은 특정 학파의 학설이나 교유 관계에 매몰되지 않는 개방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호남의 장성을 중심으로 선현들의 문집 간행, 주요 유적의 정비, 유학 전통 계승 등 폭넓은 활동을 펼쳤다.

또한 '산암전고(汕巖全稿)'와 '산암별고(汕巖別稿)'등 문집을 창작하고, '동문선(東文選)'이래 가장 방대한 문학 선집 '문원(文苑)'을 30여 년에 걸쳐 편찬하는 등 호남의 저명한 근현대 유학자이다.

시조를 풀이한 역사콘텐츠학과 변주승 교수(한국고전학연구소장)는 "한문으로 시를 짓고 일기를 쓰던 유학자가 한글 시조로 지역의 문화 전통을 전승하고자 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고전학연구소는 한국학 고전 연구에 특화된 연구소로서 자료총서와 연구총서 외에 교양총서를 발간하여 인문학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다.



아디다스 공식몰 아디다스

홈 > 대학 > 대학뉴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교양총서 제8권 '호남 유학자 간'

박소현 기자 | 입력 2025.06.04 16:53 | 댓글 0

[베리타스알파=박소현 기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교양총서 제8권 '호남 유학자, 시조를 읊다'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교양총서는, 한국고문연구회장을 지낸 산암(汕巖) 변시연(邊時淵, 1922~2006)이 지은 99수의 시조(詩調) 작품을 풀이하고, 저자의 친필 원고를 수록했다. 이 시조는 단순한 문학적 표현을 넘어 지역의 명소와 인물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고, 지역의 설화를 문학적으로 재구성하는 등 장성 지역을 대표하는 기록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저자인 변시연의 본관은 황주(黃州), 자는 경중(敬中), 호는 산암(汕巖)이다. 17세 때 충북 보은 관선재(觀善齋)로 가서 퇴계의 학맥을 이은 겸산(兼山) 홍치유(洪致裕)에게 수학했고, 석농(石農) 오진영(吳震泳)에게 제자의 예를 올렸다. 변시연은 특정 학파의 학설이나 교유 관계에 매몰되지 않는 개방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호남의 장성을 중심으로 선현들의 문집 간행, 주요 유적의 정비, 유학 전통 계승 등 폭넓은 활동을 펼쳤다.

또한, '산암전고(汕巖全稿)'와 '산암별고(汕巖別稿)' 등 문집을 창작하고, '동문선(東文選)' 이래 가장 방대한 문학 선집 '문원(文苑)'을 30여 년에 걸쳐 편찬하는 등 호남의 저명한 근현대 유학자이다.

시조를 풀이한 역사콘텐츠학과 변주승 교수(한국고전학연구소장)는 "한문으로 시를 짓고 일기를 쓰던 유학자가 한글 시조로 지역의 문화 전통을 전승하고자 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전했다.

한국고전학연구소는 한국학 고전 연구에 특화된 연구소로서 자료총서와 연구총서 외에 교양총서를 발간해 인문학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다.

← CRITEO 광고

광고 신고하기

Ad choices ▶

← CRITEO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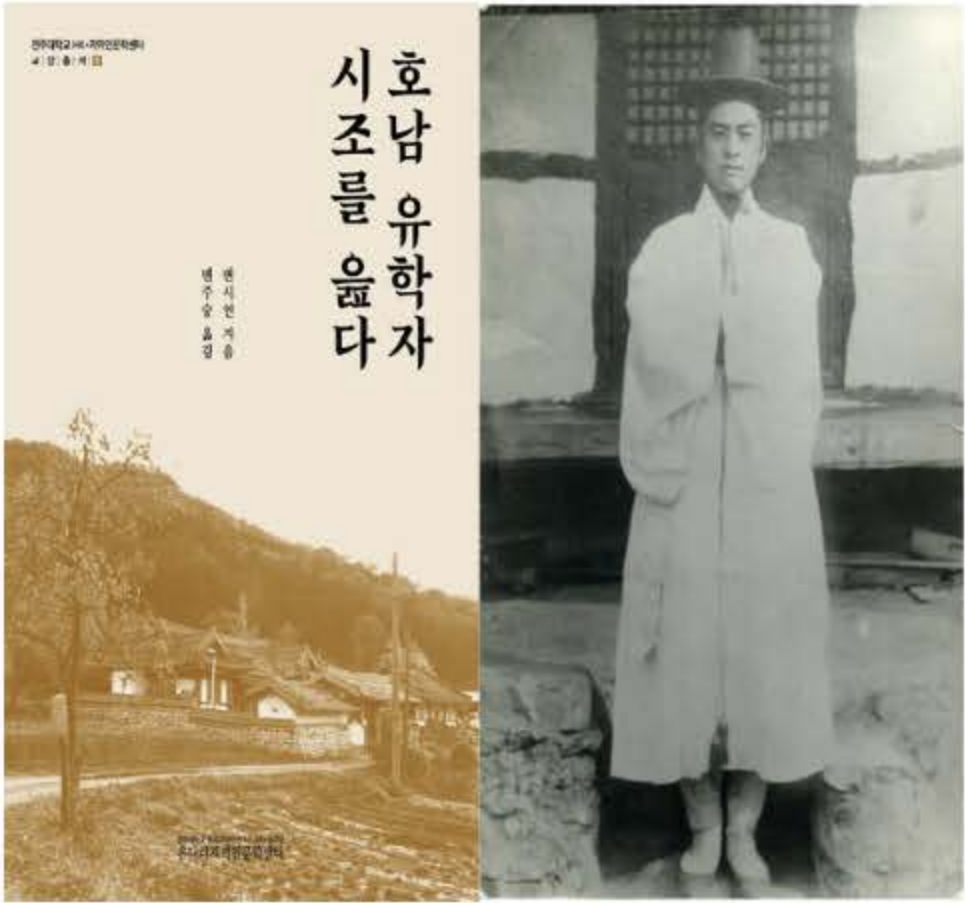
홈 > 교육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교양총서 제8권 발간

서도연 기자 | © 입력 2025.06.04 13:58 | 댓글 0



『호남 유학자, 시조를 읊다』
 근현대 유학자의 시선에 담은 호남 풍경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호남 유학자, 시조를 읊다』 발간@아시아뉴스전북

[아시아뉴스전북=서도연 기자]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한국고전학연구소는 교양총서 제8권 『호남 유학자, 시조를 읊다』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교양총서는, 한국고문연구회장을 지낸 산암(汕巖) 변시연(邊時淵, 1922~2006)이 지은 99수의 시조(詩調) 작품을 풀이하고, 저자의 친필 원고를 수록하였다. 이 시조는 단순한 문학적 표현을 넘어 지역의 명소와 인물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고, 지역의 설화를 문학적으로 재구성하는 등 장성 지역을 대표하는 기록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저자인 변시연의 본관은 황주(黃州), 자는 경중(敬中), 호는 산암(汕巖)이다. 17세 때 충북 보은 관선재(觀善齋)로 가서 퇴계의 학맥을 이은 겸산(兼山) 홍치유(洪致裕)에게 수학하였고, 석농(石農) 오진영(吳震泳)에게 제자의 예를 올렸다. 변시연은 특정 학파의 학설이나 교유 관계에 매몰되지 않는 개방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호남의 장성을 중심으로 선현들의 문집 간행, 주요 유적의 정비, 유학 전통 계승 등 폭넓은 활동을 펼쳤다.

또한, 『산암전고(汕巖全稿)』와 『산암별고(汕巖別稿)』 등 문집을 창작하고, 『동문선(東文選)』 이래 가장 방대한 문학 선집 『문원(文苑)』을 30여 년에 걸쳐 편찬하는 등 호남의 저명한 근현대 유학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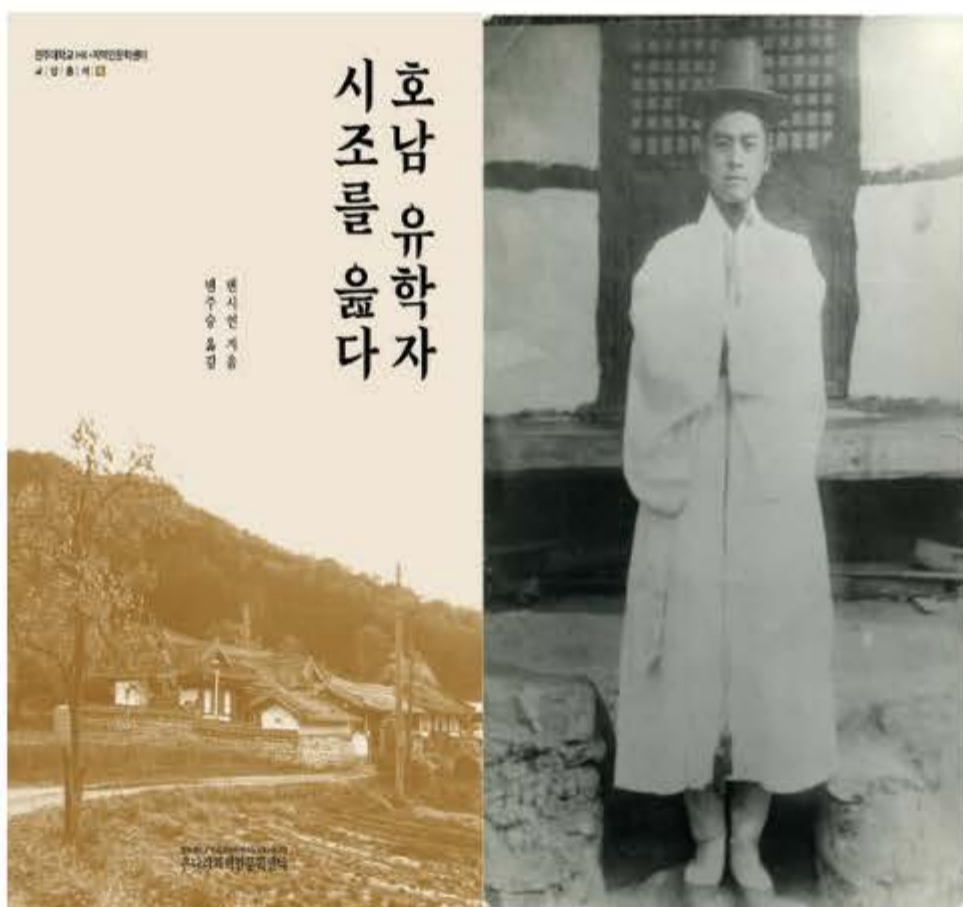
시조를 풀이한 역사콘텐츠학과 변주승 교수(한국고전학연구소장)는 “한문으로 시를 짓고 일기를 쓰던 유학자가 한글 시조로 지역의 문화 전통을 전승하고자 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고전학연구소는 한국학 고전 연구에 특화된 연구소로서 자료총서와 연구총서 외에 교양총서를 발간하여 인문학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다.

문화/관광 입력 2025.06.05 13:42 수정 2025.06.05 13:51

변주승 전주대 교수, 산암 변시연 시조 해설집 발간

한국고전학연구소 교양총서 제8권 '호남 유학자, 시조를 읊다'



책 표지(북하면 손룡정사(巽龍精舍))와 산암 변시연 선생 17세 때의 모습

전주대학교 변주승 교수(한국고전학연구소장)가 선친 산암 변시연 선생의 시조를 상세히 풀이한 해설집을 발간했다.

지난 4일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의 교양총서 8권 '호남 유학자, 시조를 읊다'가 세상에 나왔다.

이 교양총서는 근현대 호남 유학자 산암 변시연(1922~2006) 선생이 남긴 99수의 시조를 상세히 풀이하고, 저자의 친필 원고를 함께 담아 눈길을 끈다.

특히 옛 한학자들의 시조가 한문으로 쓰여진 반면, 이 책에 담긴 변 선생의 시조는 한글을 혼용한 국한문 시조라는 점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는다.

산암 변시연 선생은 한국고문연구회장을 역임한 인물로, 단순한 문학 작품을 넘어 지역 명소와 인물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도덕적 가치를 시조에 녹여냈다.

특히 장성 지역의 설화들을 문학적으로 재해석하며 장성을 대표하는 기록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변시연은 본관이 황주, 자는 경중, 호는 산암이다. 17세 때 충북 보은 관선재에서 퇴계의 학맥을 잇는 홍치유에게 수학했다.

이후 석봉 오진영에게도 사사하여 특정 학파에 얽매이지 않는 개방적 자세로 호남 장성 일대에서 선현 문집 간행과 유적 정비, 유학 전통 계승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산암전고'와 '산암별고' 등 문집을 창작했으며, 30여 년에 걸쳐 '동문선' 이후 가장 방대한 문학 선집인 '문원'을 편찬한 호남을 대표하는 근현대 유학자로 꼽힌다.

이 시조를 해설한 역사콘텐츠학과 변주승 교수(한국고전학연구소장)는 "한문으로 시를 짓고 일기를 쓰던 유학자가 한글 시조로 지역 문화 전통을 전승하고자 한 점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고전학연구소는 한국학 고전 연구를 전문으로 하며, 자료총서와 연구총서, 교양총서 발간을 통해 인문학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변중섭 기자 newsinjs@naver.com

기자의 다른기사



'호남 유학자, 시조를 읊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교양총서 제8권 발간

'호남 유학자, 시조를 읊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교양총서 제8권 발간

기사입력 2025-06-04 오후 6:28:00 | 최종수정 2025-06-04 18:28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는 교양총서 제8권 『호남 유학자, 시조를 읊다』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교양총서는 한국고문연구회장을 지낸 산암 변시연이 지은 99수의 시조 작품을 풀이하고, 저자의 친필 원고를 수록했다. 이 시조는 단순한 문학적 표현을 넘어 지역의 명소와 인물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고, 지역의 설화를 문학적으로 재구성했다.

저자는 17세 때 충북 보은 관선재로 가서 퇴계의 학맥을 이은 겸산 홍치유에게 수학했고, 석농 오진영에게 제자의 예를 올렸다. 변시연은 특정 학파의 학설이나 교유 관계에 매몰되지 않는 개방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호남의 장성을 중심으로 선현들의 문집 간행, 주요 유적의 정비, 유학 전통 계승 등 폭넓은 활동을 펼쳤다.

또한, 『산암전고』와 『산암별고』 등 문집을 창작하고, 『동문선』 이래 가장 방대한 문학 선집 『문원』을 30여 년에 걸쳐 편찬하는 등 호남의 저명한 근현대 유학자이다.

시조를 풀이한 역사콘텐츠학과 변주승 교수(한국고전학연구소장)는 "한문으로 시를 짓고 일기를 쓰던 유학자가 한글 시조로 지역의 문화 전통을 전승하고자 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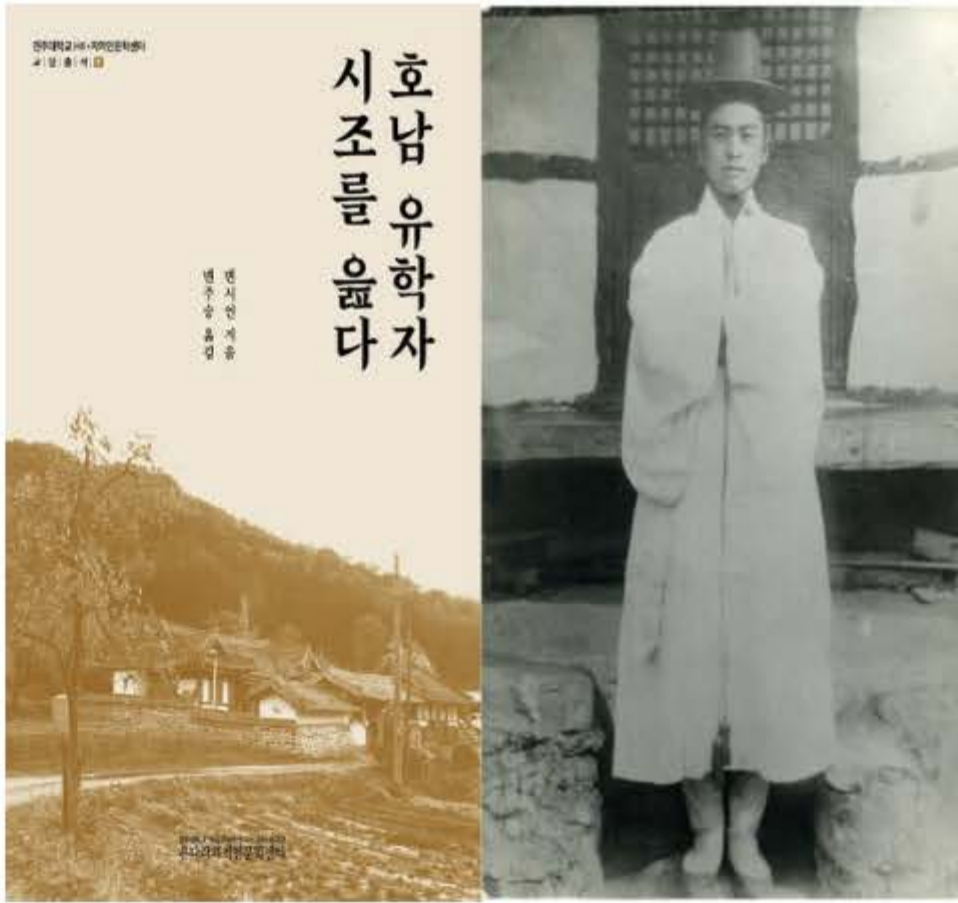
/장은성 기자

홈 > 분야별 뉴스 > 교육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교양총서 제8권 '호남 유학자, 시조를 읊다' 발간했다

이나영 기자 | 입력 2025.06.04 13:59 | 댓글 0

가 가



[투데이안]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한국고전학연구소가 교양총서 8번째 권인 '호남 유학자, 시조를 읊다'를 6월 4일 선보였다

이번 교양총서는 근현대 호남 유학자 변시연(1922~2006)이 남긴 99수의 시조를 상세히 풀이하고, 저자의 친필 원고를 함께 담아 눈길을 끈다

변시연은 한국고문연구회장을 역임한 인물로, 단순한 문학 작품을 넘어 지역 명소와 인물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도덕적 가치를 시조에 녹여냈다

특히 장성 지역의 설화들을 문학적으로 재해석하며 장성을 대표하는 기록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변시연은 본관이 황주, 자는 경중, 호는 산암이며, 17세 때 충북 보은 관선재에서 퇴계의 학맥을 잇는 홍치유에게 수학했다

이후 석봉 오진영에게도 사사하며, 특정 학파에 얽매이지 않는 개방적 자세로 호남 장성 일대에서 선현 문집 간행과 유적 정비, 유학 전통 계승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산암전고'와 '산암별고' 등 문집을 창작했으며, 30여 년에 걸쳐 '동문선' 이후 가장 방대한 문학 선집인 '문원'을 편찬한 호남을 대표하는 근현대 유학자로 꼽힌다

이 시조를 해설한 역사콘텐츠학과 변주승 교수(한국고전학연구소장)는 "한문으로 시를 짓고 일기를 쓰던 유학자가 한글 시조로 지역 문화 전통을 전승하고자 한 점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고전학연구소는 한국학 고전 연구를 전문으로 하며, 자료총서와 연구총서, 교양총서 발간을 통해 인문학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최신뉴스

- [전주시] AI 바이오 융합의 미래, 전주에서 찾다
- 완주군자원봉사센터 우석대 대학생 봉사단 발대
- 국립군산대, 부안 청림전문대서 전문체력 프로그램...
- 전북자치도,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세미나 ...
- 농협, 재난 앞에서 가장 먼저 손 내미는 이유... '자...

포토뉴스



인기뉴스

- [익산시] 스포츠로 여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
- 전북특별자치도, 대통령 선거 본 투표율 4.2% 기
- [6·3 대선] 이재명, 전국 48.99% 득표...전국 과반
- 전북은행, 'JB파트너 데아 성료... 1천여 명 응
- 전주 소피아 여성의원, 직원 대상 '투표 수당' 지
- 중앙선관위 "공정하고 투명한 투개표 준비 마
- 기호 1번 이재명 기자회견, "국민과 함께 진짜
- 전북 9시 현재 본선거 투표율 6.8%... 익산 8.0%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교양총서 제8권 발간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5-06-04 20:38 KRX7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교양총서 #번시연 #산암전고

f 페이스북 t 트위터 k 카카오톡 v 라인 g+ 확대 g- 축소 c 인쇄



(이미지 = 전주대학교)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한국고전학연구소는 교양총서 제8권 ‘호남 유학자, 시조를 읊다’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교양총서는 한국고문연구회장을 지낸 산암(汕巖) 번시연(邊時淵, 1922~2006)이 지은 99수의 시조(詩調) 작품을 풀이하고, 저자의 친필 원고를 수록했다.

이 시조는 단순한 문학적 표현을 넘어 지역의 명소와 인물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고, 지역의 설화를 문학적으로 재구성하는 등 장성 지역을 대표하는 기록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저자인 번시연의 본관은 황주(黃州), 자는 경중(敬中), 호는 산암(汕巖)이다. 17세 때 충북 보은 관선재(觀善齋)로 가서 퇴계의 학맥을 이은 겸산(兼山) 홍치유(洪致裕)에게 수학했고, 석농(石農) 오진영(吳震泳)에게 제자의 예를 올렸다.

번시연은 특정 학파의 학설이나 교유 관계에 매몰되지 않는 개방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호남의 장성을 중심으로 선현들의 문집 간행, 주요 유적의 정비, 유학 전통 계승 등 폭넓은 활동을 펼쳤다.

또한 ‘산암전고(汕巖全稿)’와 ‘산암별고(汕巖別稿)’ 등 문집을 창작하고, ‘동문선(東文選)’이래 가장 방대한 문학 선집 ‘문원(文苑)’을 30여 년에 걸쳐 편찬하는 등 호남의 저명한 근현대 유학자이다.

시조를 풀이한 역사콘텐츠학과 변주승 교수(한국고전학연구소장)는 “한문으로 시를 짓고 일기를 쓰던 유학자가 한글 시조로 지역의 문화 전통을 전승하고자 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고전학연구소는 한국학 고전 연구에 특화된 연구소로서 자료총서와 연구총서 외에 교양총서를 발간해 인문학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